

2018년 9월 28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 Economist 홍춘욱 02) 3787-4964/ chunukhong@kiwoom.com

미 기술주 강세

애플과 아마존 등 이른바 'FAANG'이 상승 주도

시장금리가 반등했지만, 금융주 약세 흐름 이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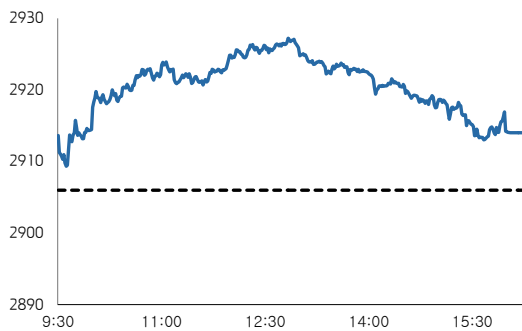
미 증시는 애플 등 기술주의 상승에 힘입어 강세. 다우 산업 평균은 0.21% 상승한 2 만 6,439.93, S&P500 은 0.28% 오른 2,914 포인트, 나스닥 종합은 0.65% 상승한 8,041.97 포인트로 마감.

애플은 J.P. 모건이 '비중확대' 의견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간한 데 힘입어 2.1% 상승. J.P. 모건은 애플의 서비스가 매우 강력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애플이 하드웨어 회사에서 서비스 회사로 시장 예상보다 훨씬 빨리 변신하고 있다"고 평가. 한편 아마존은 투자은행 스티펠이 목표 주가를 현 주가보다 30% 이상 높게 잡은 2,525 달러로 제시한 데 힘입어 1.9% 상승. 스티펠의 목표 주가 수준은 현재 월 스트리트의 주요 투자 은행 중에서 가장 높았음. 페이스북, 알파벳, 그리고 트위터 역시 동반 상승.

전날 FOMC 에 대한 재해석도 증시 강세 요인으로 작용. 연준이 금리를 25bp 인상했지만, "완화적" 통화정책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것에 주목.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은 "연준이 이 문구를 삭제한 것은 투자자들에게 이제 금리가 점진적으로 인상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평가. FOMC 가 열렸던 수요일 증시 조정의 최대 원인이었던 은행주의 약세 흐름은 목요일에도 이어져 J.P. 모건 체이스와 골드만 삭스 그리고 BoA 가 모두 하락.

한편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분쟁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음. 수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11 월 중간선거에 중국이 개입하고 있다고 공격. 그는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베이징의 공산당 지도자들이 미 공화당의 승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다른 나라의 내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 협상 속도가 느린 것에 대해서도 비판.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355.43	+0.70	홍콩항셱	27,715.67	-0.36
KOSDAQ	833.01	+0.62	영국	7,545.44	+0.45
DOW	26,439.93	+0.21	독일	12,435.59	+0.40
NASDAQ	8,041.97	+0.65	프랑스	5,540.41	+0.50
S&P 500	2,914.00	+0.28	스페인	9,527.50	+0.03
상하이종합	2,791.78	-0.54	그리스	707.92	+0.86
일본	23,796.74	-0.99	이탈리아	21,511.07	-0.6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금융주 약세 지속

시장금리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J.P. 모건 체이스와 골드만 삭스 그리고 BoA 등 주요 금융주는 동반 하락했음.

반면 애플과 아마존 등 주요 기술주는 애널리스트들의 우호적인 평가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으며, 기술주는 S&P500 지수 상승에 약 0.5% 포인트 기여한 것으로 평가.

미국 정부가 '전략비축유' 방출 계획이 없다고 밝힌 데 힘입어 국제유가가 상승하자, 에너지 기업들도 동반 강세를 보였음.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0.89%	대형 가치주 ETF	-0.04%
에너지섹터 ETF	+0.08%	중형 가치주 ETF	+0.04%
소매업체 ETF	-0.18%	소형 가치주 ETF	-0.05%
금융섹터 ETF	-0.36%	배당주 ETF	+0.04%
기술섹터 ETF	+0.59%	변동성 ETF	-1.87%
소셜 미디어업체 ETF	+0.19%	대형 성장주 ETF	+0.57%
인터넷업체 ETF	+0.50%	중형 성장주 ETF	+0.14%
리츠업체 ETF	+0.31%	소형 성장주 ETF	-0.04%
주택건설업체 ETF	-0.74%	신흥국 고배당 ETF	+1.07%
바이오섹터 ETF	+1.04%	신흥국 저변동성 ETF	+0.54%
헬스케어 ETF	+0.51%	하이일드 ETF	+0.19%
곡물 ETF	-0.41%	물가연동채 ETF	+0.04%
반도체 ETF	+0.63%	Long/short ETF	-0.1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62.37	+0.05	+1.81	+1.62
소재	365.60	-0.98	-4.05	-3.10
산업재	659.40	+0.13	-1.36	+1.37
경기소비재	939.41	+0.54	+0.47	+0.86
필수소비재	553.69	-0.20	-2.11	+0.12
헬스케어	1,097.69	+0.44	+0.72	+2.35
금융	463.09	-0.34	-3.38	-2.19
IT	1,316.38	+0.54	+0.05	-0.98
커뮤니케이션스	161.18	+0.80	+2.45	+3.83
유틸리티	263.31	+0.96	-1.80	-2.68
부동산	199.25	+0.13	-3.13	-4.5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한국 주식시장, 상승 예상

MSCI 한국 지수는 0.88%, MSCI 신흥 지수도 0.49% 상승. 야간선물은 0.75pt 상승한 303.90pt 로 마감.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13.36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

미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특히 'FAANG'으로 대변되는 기술주들이 상승을 주도한 것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전날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 증시가 강세를 보였음을 감안할 때 탄력은 상대적으로 둔화될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8월 내구재주문 YoY +4.5%

미국 8월 내구재주문이 전년대비 4.5% 증가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크게 상회(예상치 +1.9%). 이는 한달 만에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수치였으며 8월까지 누적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7.4% 증가. 품목별로는 민간 항공기 수주가 대폭 늘어남(MoM +69.1%).

또한 미국 2분기 GDP 성장률이 연율 4.2%으로 확정, 4년 래 최고 수준을 기록.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공급 부족 우려로 상승

국제유가는 미국의 릭 페리 에너지부 장관이 “유가 하락을 위한 전략비축유 방출은 없다”고 언급하면서 상승.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유가를 낮추기 위해 OPEC 의 증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으나, 미국의 장관이 전략비축유 방출은 없다고 언급한 점이 국제유가 상승을 이끌었음. 한편, 사우디가 비공식적으로 최대 55만 배럴 원유를 공급하겠다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됨. 하지만 사우디의 증산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은 이 소식에는 반응하지 않음.

달러화는 미국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기대감이 이어진 가운데 유로화와 파운드화가 정치 불확실성에 약세를 보이면서 상승. 미국 9월 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 인상과 함께 점도표를 통해 추가적인 금리 인상 전망을 내놓은 점이 미국과 주요 선진국간의 통화정책 차별화를 부각시키며 달러에 강세요인으로 작용함.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 이슈가 다소 주춤해지면서 엔화는 미일 금리차 확대에 좀 더 영향을 받으며 달러 대비 약세를 보임.

유로화는 이탈리아 예산안 관련 불확실성에 하락함. 이탈리아 정부는 유럽연합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가이드라인을 지킬지 여부를 놓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유로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함. 파운드화는 브렉시트 관련 협상이 계속해서 마찰음이 발생하면서 노딜에 대한 우려가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

국제 금 가격은 미국 경제지표 개선에 따른 달러 강세 영향에 큰 폭 하락. 미국의 내구재주문이 크게 증가했고, 미국 2분기 성장률 최종치가 4.2%로 발표된 점이 달러 강세를 이끌어 냄.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72.12	+0.77	+2.56	Dollar Index	94.983	+0.84	+1.14
브렌트유	81.72	+0.47	+3.84	EUR/USD	1.1642	-0.83	-1.15
금	1,187.40	-0.98	-1.97	USD/JPY	113.39	+0.59	+0.80
은	14,290	-0.77	-0.10	GBP/USD	1.3078	-0.68	-1.41
알루미늄	2,043.00	-1.07	0.00	USD/CHF	0.9769	+1.12	+1.87
전기동	6,082.00	-3.18	0.00	AUD/USD	0.7206	-0.72	-1.18
아연	2,455.00	-3.35	0.00	USD/CAD	1.3046	+0.21	+1.11
옥수수	364.75	+0.48	+3.48	USD/BRL	4.0029	-0.75	-1.81
밀	513.00	-0.87	-2.10	USD/CNH	6.8876	+0.12	+0.76
대두	855.00	+0.59	+0.56	USD/KRW	1112.50	-0.25	-1.25
커피	99.30	+1.59	-0.45	USD/KRW NDF 1M	1113.36	-0.12	-0.29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3.054	+0.56	-0.90	스페인	1.503	-1.80	-0.50
한국	2.365	-4.50	+4.00	포르투갈	1.864	-2.50	-0.90
일본	0.120	-0.60	-0.30	그리스	4.022	-0.30	-3.00
독일	0.529	+0.30	+5.80	이탈리아	2.885	+2.90	+0.60